

발레전공무용수의 자기관리: 무용공간에서 작동하는 감시와 훈육의 메커니즘 분석

이진희^{1*}

¹충남대학교 무용학과

The ballet dancer's self-management: The mechanism of monitoring and disciplining Space Studies

Lee, Jin-Hee^{1*}

¹Department of Danc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발레전공생들의 자기관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푸코의 규율권력과 연계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교의 발레전공 4학년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면담법을 실시하였으며, 얻은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먼저, 발레전공무용수들이 효과적인 체중조절을 실천하기 위한 체중조절방식에는 단식, 한가지음식먹기,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섭취하기 등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체중조절의 실천을 지속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시선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규율의 힘이 무용수들의 몸에서 자동적으로 행사하게끔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통제의 도구로 본 연구에서는 '거울과 체중계'을 들 수 있었다. 또한 무용수들의 체중관리의 또 다른 지속요인으로 서로간의 감시방식인 시놉티콘 현상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권력자의 배치에 관한 문제도 체중조절의 지속적인 실천에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relating with Faucult's disciplinary power which factors influence a dancer's self-management (weight control) Total 10 ballet major undergraduate students of two respective universities in Seoul and Dajon were selected for the research and the chosen method was an interview with them. After the researchers analyzed the interview result, they found out the following several significant results. The first reason that major ballet dancers control their weight is to show their beautiful figures on the stage and to make their appearances look slender in the mirror. Dancers adapt various methods for effective weight management (diet control) such as dietary control, 1 food intake (potatoes, bananas, grapes, etc), physical force to advise or ingest (injection, taking medicines, reflexology, vomiting, etc.) Then, what is the hidden vision that makes such a practice of weight control maintain? The study presents a "mirror" as a tool of control playing a significant role, in terms that the power of discipline functions automatically in a dancer's body. In addition, another constant factor of dancers' weight management is monitoring each other's performance continuously, which is called "synopticon" Symptoms. Lastly, the fact that a question about placing a ruler could function in the continuous practice was also revealed.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Key Words : Ballet dancer's, Self-management, Mechanism of monitoring, Disciplining Space Studies

1. 서론

최근 들어 몸은 사회 전반에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

고 있으며, 여러 학문분야에서도 체중관리나 몸에 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2]. 특히 미디어를 통해 날씬함이 강조되면서 몸은 개인의 욕구와 욕망

*교신저자 : 이진희(evvne@cnu.ac.kr)

접수일 11년 09월 29일

수정일 (1차 11년 11월 22일, 2차 11년 12월 02일)

게재확정일 11년 12월 13일

속에 순응하여 형성될 수 있는 변형 가능한 존재양식으로 간주되고[27], 이러한 사회 환경에 따라 현대소비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과 방법으로 육체를 이용한 산업이 각광을 받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강조되는 외모 중시 사회 풍토로 인하여 적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급기야는 정신적 장애나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치달게 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

이렇듯 사회 전반에 걸쳐서 확산되어 있는 몸 관리나 체중관리에 관한 문제는 스포츠에서도 지속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비언어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주제로 하는 무용 또한 이 문제를 두고 끊임없는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무용예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몸은 예술적 완성을 높이고, 고난이도의 동작을 수행하는데 절실한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즉, 몸이 표현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무용 문화 내에서 무용수들은 길고 날씬한 몸매야말로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연기에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체중을 관리하여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작업은 자신 있고 훌륭한 공연을 하는데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14]. 따라서 무용수들은 다른 어느 집단보다 날씬한 몸에 대한 열망과 관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렇기에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구체적으로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여기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26].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그동안 무용수나 무용 전공생들이 체중을 어떻게 관리하였는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는, 무용수들의 섭식태도가 어떠한지[4,8,16,26], 섭식장애를 낳고 있는지[16,17,19,22-25], 그러한 섭식장애의 원인과 예방책은 무엇이었는지[5,14], 나아가 무용수의 섭식장애 원인이 무용수의 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7,20]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한다. 다시 말해, 몸 관리는 무용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인과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중요성은 물론,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유지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것이다. 가령, Green[31]은 무용수들은 감시와 신체의 대상화라는 점철된 규율적 체제 내에서 생활하며, 그 체제 내에서 특히 여성무용수의 몸은 전방위적으로 형성된 비가시적인 시선과 불명확한 판단기준들에 의해 해체되고 재형성된다고 말한다. 무용의 공간에서 살펴보면, 무용수 스스로 또는 서로 간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몸의 평가, 시선의 체계, 또는 체벌과 훈육 등이 개입되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무용수들은 자신이 올바른 모습을 갖추었는가를 꾸준히 인식하고 관리하기에 이르게 되고, 여기에는 Foucault의 인식론에 대한 틀이 개입

할 수 있게 된다.

Foucault[30]는 규율권력을 “개개인의 몸을 훈련시키고 그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어, 이를 길들인 후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통제 시스템에 통합시키는 힘(p.132)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는 모든 것을 한 번에 감시할 수 있는 판옵티콘의 전면감시장치를 통해 규율적인 시선이 작용하여 궁극적으로는 자기 스스로를 규제하는 일종의 자기감시의 역할까지도 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따라서 Foucault[30]가 제시하고 여러 연구자들이 적용한 규율권력과 자기 감시의 개념은 체중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무용수들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준거틀로서 그 유용성과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그동안 푸코의 이론적인 틀이 적용되어 이루어진 스포츠 분야의 국내연구[9,10,15,18,21]는 많이 이루어져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몸에 대한 자기관리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무용 분야의 심층적인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다. 물론, 고은하[3]는 무용의 체현방식과 그것이 무용수의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살펴보았으며, 송은주[12] 또한 무용문화에서 무용수들이 인지하고 있는 몸의 상호작용과 몸만들기 수행의 메커니즘을 Giddens의 ‘구조화이론’의 관점에서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Foucault의 인식론적 틀에 입각한 자기감시와 훈육의 메커니즘에 대하여 밝혀내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무용의 장르 중 체중관리를 가장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는 대학발레전공생들을 대상으로 자기 관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푸코의 규율권력과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발레전공무용수들이 체중조절을 실천하기 위한 체중조절방식의 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둘째, 이러한 실천을 지속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감시의 시선은 어떻게 내면화되는가?

이러한 연구의 시도는 단순히 대학발레전공자들의 체중조절방법을 조사하는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무용수들에게 일련의 관습과 같은 자기관리 방법이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푸코의 권력관계와 그 맥락을 함께 하면서 감시되고, 통제되며, 훈육되고 있음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용수들에게 있어 항상 고민거리로 남아있는 체중관리가 가지는 문제점과 모순된 현상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어떠한 환경과 요인에 따라 체중관리가 이루어지고, 그 체중관리를 지속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힘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의 몸

을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처벌에 의해 다시 스스로를 규율하게 되는지, 더 나아가 공간배치를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권력관계가 어떠한 방식에 의해 규율하게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참여자

이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대학에서 발레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2개의 집단을 임의로 선정하였으며, 모두 국립발레단과 유니버설발레단에 입단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4학년 여학생이다. 이들 중 실기능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와 의 면담 후 최종 10명의 연구참여자로 구성하였다. 연구참여자의 표집방법은 비확률 표집방법인 유목적적 표집방법 중 준거(범주)표집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몇몇 범주를 만족시키는 사례를 선정하는 방법으로서 자료의 질적인 진실성이나 신뢰성을 제시해줄 수 있고, 이를 용이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33].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Participant information

순번	이름	학교	무용 경력	키 (cm)	몸무게 (kg)
1	H.B.Y.	C대학교	6년	167	50
2	L.J.Y.	C대학교	6년	171	54
3	P.S.I.	C대학교	8년	164	45
4	P.S.Y.	C대학교	10년	163	44
5	L.J.H.	C대학교	8년	165	44
6	Y.J.H.	D대학교	9년	166	45
7	K.K.W.	D대학교	7년	165	47
8	L.K.Y.	D대학교	6년	168	48
9	J.H.S.	D대학교	9년	167	48
10	K.H.Y.	D대학교	11년	170	49

2.2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적용된 자료수집 방법은 심층면담이다. 본 연구자에 의해 2009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동안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이 이루어졌다. 10명의 연구참여자와의 면담에 들어가기 전 질문할 문항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비연구를 행하여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면밀한 검토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들 질문 문항들은 푸코의 연구와 더불어 체중조절 실천에 대한 연구를 면밀

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음식섭취방법, 다이어트 하는 이유, 체중조절에 사용된 방법, 살찐 무용수에 대한 인식, 체중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의 주위의 시선, 자신의 몸 관리 기준, 예쁜 몸의 기준, 목표의식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질문지를 가지고 2월에 대학발레전공생 2명을 대상으로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면담 진행자와 참여자 사이의 사고방식, 지위 등과 같은 차이에 따라 자료의 해석 및 참여자의 면담 반응이 변할 수 있기에 [29,34] 예비연구를 통해 이러한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도록 노력하였으며, 실제로로 간과되는 질문과 현상은 없는지도 예비연구에서 점검되었다. 예비연구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문항과 더불어 10명의 연구참여자와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우선 그들에게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연구의 목적, 자료의 쓰임새, 참여자의 권리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담당지도교수에게도 양해를 구하여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하였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면담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루어졌고, 면담장소는 C대학교의 경우 무용실기실에서, D대학교는 무용실기실 옆에 마련된 휴게실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은 개별적으로 3번씩 이루어졌는데, 이들 면담의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모두 녹음되었다.

2.3 자료분석

앞선 자료수집 방법을 통해 얻어진 자료들은 연구자에 의해 모두 전사되었다. 전사작업 후 얻어진 문서자료들은 A4용지 30장 분량이었고, 이들 내용에 친숙해지기 위한 단계로서 본 연구자들은 그 자료들을 개별적으로 숙독하였다. 이 과정을 마친 후 문화기술적 내용분석을 통하여 자료의 분석이 진행되었는데, 이 분석방법은 이론에 의해 형성된 다소 추상적인 내용만을 보여주기보다는 현장에서 얻어진 자료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자료로부터 분석의 범주를 도출시킬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면담내용을 바탕으로 크게 두 가지 범주를 만들어냈다. 그 범주의 세부적 내용은 첫째, 체중조절방식의 내용, 둘째, 지속적인 체중조절을 위한 시선의 내면화였다.

2.4 자료의 신뢰성과 진실성

본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로서 Lincoln과 Guba[32]에 의해 제시된 방법이 적용되었다. 연구자 간 분석을 이용한 ‘다각도 검증’을 통

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문화적 내용분석을 하는데 있어 사용된 프로토콜의 생성과 범주과정이 연구자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이를 비교하고 논의하기 위하여 여러번의 회의를 거친 후 항시비교법을 적용하여[28] 범주별로 타당한 해석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질적연구방법에 대한 지식을 지니고 있는 3명의 연구자와 본 연구자들이 전사된 면담 자료를 반복적으로 숙독하였다. 이 과정은 두 번째 면담이 끝난 후 이루어졌으며, 연구자 회의를 통해 3번째 면담시 확인할 사항과 추가하여 물어볼 사항을 결정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해석의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었다.

3.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결과는 우선 발레전공 무용수들이 체중조절을 실천하기 위한 체중조절방식의 내용, 다음으로 이러한 실천을 지속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감시의 시선은 어떻게 내면화되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3.1 발레전공무용수들의 체중조절방식

먼저 무용수들이 효과적인 체중관리를 실천하기 위한 체중조절방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발레전공무용수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은 단식(식이조절)이었다. 그 이유는 매일 꾸준하게 하고 있는 연습량 때문에 운동으로 빼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며 빠른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습량은 유지하면서 점심이나 저녁을 굶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면담내용은 이러한 성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저는 운동하면서 빠려고 헬스 같은 운동을 하면 근육이 더 생기는 체질이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방은 빠지고 근육이 예쁘게 생긴다고 하는데 저는 팔뚝이나 허벅지가 더 두꺼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음식조절을 해서 빼고 있어요. 아침, 점심은 조금씩 먹고 저녁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먹어요. 물도요.. 물만 마셔도 살찌는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공연이 생기면 공연때까지 최소한의 음식만 먹고 거의 먹지 않아요...(L.K.Y., D대학교).

또한 일정한 기간동안 한 가지 음식만을 먹는 방법도 한 번씩은 경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자, 포도, 바

나나 등의 음식만을 섭취함으로써 체질개선은 물론 체중감량의 효과까지도 기대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섭취하면서 체중조절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자면 살을 빼고자 하는 부위(주로 팔뚝, 하체)에 경락이나 마사지 관리를 받거나 살 빠지는 한약먹기, 식욕억제제 먹기, 다이어트 음료 마시기, 또는 주사를 맞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섭취하였을 경우 살이 찌는 것을 걱정하여 다시 토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었다. 권기남[1]은 여자선수들이 경험했거나 행하고 있는 체중조절방법이 과도한 연습, 다이어트, 사우나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결식과 약물복용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본 연구의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의 면담내용도 체중조절방식을 잘 말해주고 있다.

저는 큰 얼굴하고 허벅지가 콤플렉스예요.. 그래서 턱을 깎고 싶은데 집에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하고... 그래서 경락을 받아요. 받으면 얼굴이 조금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허벅지도 그렇구요... (J.H.S., D대학교).

저녁에 안먹으려고 끝까지 버티다가... 야식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에는 먹어요. 그런데 먹고 나면 엄청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소화되기 전에 얼른 토해버려요... (L.J.H., C대학교).

이렇듯 체중조절 방법을 종합해보면 대부분이 체중을 감량하고자 위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체계적인 운동과 식습관을 병행하기보다 식이제한이나 그 밖의 방법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효과를 노린 것이며, 이는 결국 건강이나 몸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행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체중조절방법이 사용되어야 마땅하지만 이는 고려하지 않고 오직 과거 답습적인 성향에만 의존하고 있음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박미향[11]의 연구에서는 무용수의 이상적인 몸만들기 방법으로 개인적인 트레이닝과 경락을 꼽고 있었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과도한 운동과 연습, 식이조절, 탄산음료 마시지 않기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힘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체중조절 방식은 불규칙한 섭식태도를 유발하거나 불균형한 영양상태, 부상, 체력저하, 대인관계회피 등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어 무용수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힌바 있다

[12]. 고은하[3] 또한 이러한 체형적불만족 해소를 위해 하는 노력들이 원치 않은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특히 무리한 체중조절은 장기적으로 무용수의 건강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불균형적인 체형관리는 궁극적인 만족감을 가져다주지 못하며, 결국 무용수는 항상 모자라는 그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반복의 일상을 보내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남상우[9]는 운동선수가 체중을 감량하는데 있어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 운동보다는 ‘먹을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를 ‘지방’의 부족으로 말하고 있었다. 즉, 그동안 선수로서 다져진 몸매는 기본적으로 지방이 없으므로 수분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하였으며, 이렇게 먹을 것을 제한하는 방식의 체중감량 방법은 과거나 현재나 비슷한 경향[6]을 보여주고 있었다.

3.2 체중조절에 영향을 주는 시선의 내면화

이렇듯 무용수들은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가지고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체중조절 방법이 사용되어왔다. 그렇다면 이렇게 체중조절의 실천을 지속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시선은 과연 무엇일까?

규율의 힘이 무용수들의 몸에서 자동적으로 행사하게끔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통제의 도구를 본 연구에서는 ‘거울’과 ‘체중계’로 보았다. 자신의 몸을 지속적으로 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몸을 직접 보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로 ‘거울’이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무용수들은 수시로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몸을 관찰하고 감시하며 날씬한 친구의 몸과 얼굴크기를 자신과 비교하기에 이른다. 또한 자신이 가장 날씬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지속적으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무용수의 이상적인 기준을 따라가려는 것이 아닌 무조건 날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그 수치가 규격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는 체중계는 자신의 몸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도구이며, 스스로를 감시하기에 매우 용이하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무용수는 키와 상관없이 45kg이 넘어가면 무조건 살을 빼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거울’과 ‘체중계’가 자기감시로까지 연결될 수 있게 하는 요인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의 몸을

확인하면서 느끼게 되는 수치심 때문이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체형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거울 속에 보이는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체중계의 숫자에만 집착하면서 느끼게 되는 수치심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규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제 몸을 제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게 거울이잖아요. 친구들한테 나 살쪼냐고 물으면 아니라고만 하니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시로 거울로 내 몸을 보게 되는데, 조금이라고 살이 찐 것 같으면 괜히 내 모습이 창피해지고, 뒷줄로 가서 서게 되요... 그리고 팔뚝이 두꺼워 보이는 옷이나 눈에 띄는 색깔 연습복은 되도록 안입게 되요... (K.K.W., D대학교).

저는... 체중계에 하루에 10번은 넘게 올라가요. 시도때도 없어요...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게 몸무게 재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보지 않을 때 한 번씩 올라가 보구요. 누가 볼까봐 눈치를 보면서요... 혹시 500g이라도 늘었으면 막 주위를 둘러보게 되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날 쳐다보면서 비웃는 것 같아요...(K.H.Y., D대학교).

즉, 무용수들은 연습실에서 항상 ‘거울’을 보면서 다른 무용수와 비교하여 자신의 몸을 평가하기도 하고, 스스로가 뚱뚱하다고 생각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자신의 몸이 거울에 잘 띄지 않는 측면이나 뒤쪽으로 옮기기도 하며, 또한 조금이라도 몸을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 검정색상의 연습복을 입는 등의 자기감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몸무게를 재는 일은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하루 일과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었다. 본인의 몸무게를 일정하게 정해놓은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늘어나게 되면 스스로 불안해하고 타인의 눈치를 보는 등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즉, 무용수는 이상적 신체에 스스로의 신체를 비추어 보면서 끊임없이 동일시와 모방을 한다고 보고[3]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결과는 자기 스스로를 규제하는 일종의 자기감시의 역할을 하는 푸코의 권력이론과 그 맥을 같이 하며, 이는 결국 자기 스스로 시선을 내면화한다고 말할 수 있다.

무용수들의 체중관리의 또 다른 지속요인으로 서로간의 감시방식인 시네티콘 현상이 존재하고 있었다. 다음의 면담내용이 이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예전에 저희는 레슨이 시작되기 전에 교수님이 보시는 앞에서 몸무게 측정을 해서 살이 쪼면 벌금을 냈거든요. 처음에는 엄청 창피하고 짜증났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깐 교수님이 검사하지 않아도 저희들끼리 알아서 체크하고 관리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Y.J.H., D대학교).

이를 일종의 ‘공개계제’라고 명명할 수 있는데, 이는

매일 무용수들을 모이게 한 후 다른 무용수들에게 각자의 몸무게를 공개하는 하나의 일과라고 정의할 수 있다. 대부분 지도자 즉 지도교수는 한명이 있기 마련이지만, 무용수는 20~30명 정도로 이 인원수를 한명의 지도교수가 관리하고 체중조절까지 신경쓰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공개계체를 통해 무용수간에는 보이지 않는 자극이 발생하고 경쟁심이 생겨 심리적으로 체중관리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상우[9]의 연구에서 선수들의 체중관리 실천에 작용하는 감시기제가 파놉티콘 뿐 아니라 시놉티콘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기제를 형성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지식담론, 여성다움 담론, 체중계, 공개계체 그리고 거울 등의 매개체가 포함된다고 말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또한 아래는 시놉티콘 한 형태로 나타난 신체체벌이나 단체기합에 관한 면담내용이다.

예전에는 교수님께서 몸무게를 직접 재시고 살이 찌 친구들은 무용실 밖으로 쫓아내셨어요. 참... 고등학교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입시 얼마 안남았는데 정신 못차린다고 닭대가리, 돌대가리, 멍청이, 돼지...라고 막 소리지르시고, 등도 때리시고, 멍들어도 잘 보이지 않는 곳만 골라서 꼬집고... 결국 그 친구는 울면서 나가버렸어요.. 대학생이 되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친구 한명 있으면 다음시간까지 완전 초긴장상태예요. 공연 다가오면 전부 예민해지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체벌을 못하게 하니깐 때리거나 쫓아내지는 않으시고 전체가 무용하는 걸로 단체기합을 주시죠. 가령... 점프를 계속 뛰게 한다든지, 한여름에 에어컨 끄고, 문 닫고 하루 종일 바를 시키시든지요...

그런데 몇 명 때문에 단체기합 받고 나면 정말 효과가 있어요... 하하... 신기했어요. (J.H.S., D대학교).

이와 같이 살이 찘을 때의 처벌방법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즉, 공개적으로 한 사람에게 제재를 하기(언어적 처벌, 때리기 등)도 하고, 전체를 제재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신체체벌이라는 형태가 많이 사라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체벌이 가해지고 있는 경우도 살펴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폭력의 한 형태로, 대표를 혼낸다(전시효과)거나 반대로 소수의 인원을 처벌하기 보다는 전체 인원에게 기합을 주어 그 책임을 몇 배 이상 느끼게 함으로서 스스로의 몸을 관리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드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었다. 송은주[13]의 연구에서도 무용수다운 몸매를 갖지 못했을 경우 지도자들은 그들의 음식 섭취량을

체크하거나 더 심한 경우 레슨시간마다 몸무게를 체크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이 개인 상담의 형식을 취하기보다 그 자리에서 바로 제재를 하게 된다고 말한다. 또한 여러 무용수들이 함께 어울리는 공백시간 동안 주고받는 대화들 속에는 날씬한 몸이나 다이어트 등과 관련된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대화들은 곧바로 그들의 행동을 제한하게 되며, 다시 자기감시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권력자의 공간배치에 관한 문제도 체중조절의 지속적인 실천에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발레전공무용수는 타 전공무용수보다 신체의 라인이 중요하며, 가시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권력자 즉, 지도교수가 공연을 위하여 자리를 배치할 경우 못생겼거나 뚱뚱하면 언제나 양 옆이나 뒷줄로 세우게 되며, 결과적으로 항상 군무진으로만 출연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연습상황에서 교수님의 자리배치는 공연 때의 자리배치와 연속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도교수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자리배치가 이루어지는 상황만으로도 무용수들은 스스로를 관리하고 통제하기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저희 교수님은 무용 잘하는 것보다 예쁘고 날씬한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실력이 많이 차이나는게 아니라면 주역은 외모가 중요하다는 주의서거든요. 저학년일 때는 군무로만 출연해도 괜찮았는데 4학년이 되니까 좋은 자리에 서지 못하면 너무 자존심 상하고 창피한 생각이 들어요... 특히 친한 친구나 후배가 주역을 맡으면 정말 자존심 상하고, 계속 자리에 대한 생각 때문에 연습도 잘 되지 않아요. 후배들도 괜히 저를 무시하는 것 같고... 또, 공연 때 부모님도 오실 거고, 남자친구도 오라고 하고 싶은데 뒤에서만 왔다갔다 하면 면목도 없고...(L.J.Y., C대학교).

위의 내용과 같이 무용수들은 공연할 때의 자리배치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고학년이 될수록 좋은 자리에 서지 못하는 자신을 후배들이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 크게 고민하고 있었고, 친한 친구나 후배에게 주역 자리가 넘어갔을 때에는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군무로만 움직이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지를 끊임없이 걱정하고 있었다. 결국, 자리배치에 따라 무용수는 자신감을 잃어가고, 타인에 의한 시선을 매우 두려워하게 됨으로서 점점 더 자기감시를 하게 되고 다시 마르고 긴 몸을 선호하는 무용문화를 부추기게 된다고 볼 수 있겠다.

이상의 결과에서와 같이 본 연구의 참여자들 대부분이 ‘진정한 자기관리’를 이루기 위하여 가장 중점을 둔 것이

바로 체중관리였으며, 이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는 감시의 시선을 언급하고 있었다. 즉, 거울이나 체중계를 통해 규율되는 스스로의 감시는 물론, 지도교수나 동료에 의해 이루어지는 서로간의 감시, 또한 연습실이나 무대에 서의 자리배치에서 오는 공간 감시의 시선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을 유도하며, 지속적인 훈육을 재 생산시키는 요인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발레전공생들의 자기관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푸코의 규율권력과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서울시와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교의 발레 전공 4학년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면담법을 실시하였으며, 얻은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먼저, 발레전공 무용수들이 효과적인 체중관리를 실천하기 위한 체중조절방식에는 단식(식이조절), 한가지음식 먹기(감자, 바나나, 포도 등),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섭취하기(주사맞기, 약 먹기, 경락마사지, 토하기 등) 등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체중조절의 실천을 지속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시선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규율의 힘이 무용수들의 몸에서 자동적으로 행사하게끔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통제의 도구를 본 연구에서는 ‘거울과 체중계’로 보았다. 또한 무용수들의 체중관리의 또 다른 지속요인으로 서로간의 감시방식인 시놉티콘 현상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권력자의 공간배치에 관한 문제도 체중조절의 지속적인 실천에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무용공간에서 작동하는 감시와 훈육의 메커니즘을 분석한 본 연구에서 후속연구를 위해 몇 가지 측면의 제언이 가능하다. 먼저, 발레전공생으로만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규율권력의 형태가 잘 나타날 수 있으나 이러한 규율에 대한 저항의 가능성은 미약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직업무용단원이나 프로수준의 무용수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된다면 더욱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면담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성별, 수준에 따라 결과를 명확하게 밝혀내거나, 또는 다양하고 많은 사례를 밝혀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질문지가 개발되어 이를 바탕으로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1] Kwon, K.N., The Qualitative Analysis of the Body Image of Women Aesthetic Expression Athlet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03
- [2] Kwon, W.D., & Park, M.H., Recognition of professional female dancer's body, Korean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46(1) 69-78, 2007
- [3] Ko, E. H., A Sociological analysis on the embodiment of da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0
- [4] Kim, K. J., Analyses of Individual/Practice Variables and Eating Behaviors Among College Female Danc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2001
- [5] Kim, M. H., Contributing factors and Preventative Measures of Eating Disorders among Ballet Dancers, Korean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38(1), 713-721, 1999
- [6] Kim, S. W., (The)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about reducing weight of girls' weight lifting play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997
- [7] Kim, Y. M.,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nd body image dysmorphic symptom of dancers, Korean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46(1), 123-134, 2007
- [8] Kim, H. Y., effects of perfectionism and diet fail experience on binge eating behavior : mediate cognitive deconstru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atholic University, 2000
- [9] Nam, S. W., Disciplinary power and surveillance mechanisms in the practice of conformity and resistance for weight management of athlet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6
- [10] Nam, S. W., & Lee, C. S., Surveillance, Disciplinary Power, and Weight Control: A Foucauldian Perspective, Korean Society for the Sociology of Sport, 18(2), 287-309, 2005
- [11] Park, M. H., Dancer's Consciousness and Expression of the Bo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Daegu University, 2006
- [12] Song, E. J., A study on the culture of dancer's body making from the perspective of giddens' structuration

- the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04
- [13] Song, E. J., The Body Making and Stress in Dancer, Korean society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29, 67-76, 2007
- [14] Song, E. J., & Kim, J. J., The effects of body image on dance performance and eating disorder in dancers, Korean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43(5), 779-789, 2004
- [15] Yang, S. Y., Inquiry on resistance to discourse of bodily beauty in the female elite bodybuilders' workout exper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 [16] Yoo, J. Analyses of Multidimensional Factors Predicting Ballerinas' Eating Disorders, Korean society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18, 1219-1230, 2002
- [17] Yoo, J., & Kim, K. J., Analyses of Eating Behaviors and Disorders among Female Dancers, Korean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41(5), 501-510, 2002
- [18] Lee, K. H., An inquiry disciplinary power to man's golf athletes through Foucault's bodily discourse, Korean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44(4), 109-118, 2003
- [19] Lee, J. E., An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Dancers' Behavioral Patterns of Eating Attitude and Diet Disord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of Chungang National University, 2008
- [20] Lee, J. H., Lee, C. S., Nam, S.W., & Yeo, J. K., The effect of socio-cultural internalization for appearance on objectified body-consciousness, social physique anxiety and eating disorders of dancers, Korean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48(1), 81-91, 2009
- [21] Lee, H. I., An inquiry on resistance to women's bodily discourse in female athletes, Korean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42(6), 107-116, 2003
- [22] Im, M. Y., Dancing-major students' weight-controlling eating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ungang National University, 2008
- [23] Jung, M. R., A Study of Eating Disorder Characteristics in College female danc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998
- [24] Chung, J. A., The Studies on weight control of professional ballerina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2002
- [25] Choi, S. A., Dancers' Satisfaction with Body Type, Restrained Eating and Eating Disord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008
- [26] Ha, J. K., The research study on the realities of professional ballet dancers' nutritional knowledge and eating habi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ejong University, 2009
- [27] Hong, S. J., Body, Culture, and Identity of the Body -A Critical Review of Theories on the Body, Institute of the Humanities of Yeungnam University, 47, 141-172, 2004
- [28] Charmaz., K., Grounded theory: Objectivist and constructivist methods. In N. K. Denzin Y. S. Lincoln,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2000
- [29] Fine, G. A., & Sandstrom, K. L., Knowing children: participant observation with minors Newbury park, CA: Sage. 1988
- [30] Foucault, M., Discipline and punish:The birth of the prison. New York: Pantheon Books. translator of Oh, S. K.(2003), Discipline and punish:The birth of the prison, Nanam Books, 1979
- [31] Green, Jil., "Foucault and the training of docile bodies in dance education." Arts and Learning Research Journal, 19(1), 99-125, 2002-2003
- [32] Lincoln, Y. S., & Guba, E. G.,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1985
- [33] Miles, M. B., & Huberman, A. N., Qualitative data analysis: A new source book of methods(2ed), Newbury park. CA: Sage, 1994
- [34] Reinharz, S., Feminist methods in social researc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이진희(Lee, Jin-Hee)

[정회원]



- 2003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 졸업(체육학 석사)
- 2011년 8월 : 충남대학교대학원 체육학과 졸업(이학박사)
- 2005년 9월 ~ 현재 : 충남대학교 강사

<관심분야>
무용학, 무용사회학